

기고



임동현 영암소방서장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안전을 지키세요

꽃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봄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맞이한 봄이지만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화재이다.

그 중 인명피해에 취약한 주택화재가 소방관의 마음에 가장 큰 근심으로 남는다.

최근 5년간 화재현황을 보면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건수의 21%를 차지하는 반면 사망자의 비율은 57%를 차지해 주택화재가 인명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택화재는 대부분 우리가 잠든 심야에 발생하며, 다량의 유

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연소 확대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간다.

우리 지역에도 주택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14일 거동이 불편한 90대 자매가 거주하는 목조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초기 진화하여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러한 주택화재에서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화기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인명을 구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다.

지난 14일 주택화재 당시 90대 자매를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켰던 것은 바로 주택용 화재경보기다.

화재조사 결과 90대 자매가 요란한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화재 사실을 최초 인지했으며,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하여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그 설치 방법도 간단하여 화재 경보기의 케이스를 천장에 나사로 고정시킨뒤, 화재경보기 본체와 본체의 내부 전원 장치를 서로 연결한 후 본체와 케이스를 나사식으로 돌려 부착하면 설치가 완료된다.

설치가 쉽고 작은 화재도 빠르게 감지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잊지 말고 구비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를 바란다.

기고

봄에 가장 무서운 산불, 조심하세요!

최근 10년간 산불은 평균 440건 발생하였고 발생 원인은 34%가 입산자들의 실화이며, 29%는 소각을 하다가 산불로 확대되었다. 특히 계절의 특성상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봄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어 있다.

산불 연소의 3요소(the fire triangle)는 연료(fuel), 공기(air), 열원(heat source)이 있다. 연료는 나무, 마른 풀, 심지어 집 등 화재물질을 둘러싼 가연성 물질이며,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는 소나무는 휘발성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화재가 더 심해지기 쉽다.

공기는 불이 타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

덥고 건조한 강한 바람에 의해 불꽃이 1.5km를 날아갈 수 있고 화염은 시간당 최대 22km까지 이동할 수 있다.

열원은 충분한 온도로 산불이 발화될 수 있도록 한다. 산불의 10~15%만

이 낙뢰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85~90%는 방화 및 버려진 담뱃불 등 인간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연소의 3요소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여 불을 진화할 수 있다. 흔히 물을 뿌리거나 소화 물질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거나, 식물이나 나무를 제거하는 등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여 불을 봉쇄하거나 통제하여 불을 놓아 사전에 산림을 제거하여 산불을 진화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기후변화 초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5월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다. 이 봄철 기간에는 날씨가 건조해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 입산 시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영농부산물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배출 제로(Zero-Carbon) 정책을 지키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나병기/영암소방서/곡성센터소방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 과도한 소음 사회적 배려 자세 필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대립하는 양상으로 바뀌면서 단체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한 현실에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종종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시끄러워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등 사생활 침해로 이유로 주민과 집회 주최측과 마찰을 빚곤 한다.

보통 도심지역 집회현장 주변은 주최측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상가, 학교, 아파트 등 수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며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정도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발생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소음 방출은 결국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의사 표현 및

요구를 주장하는 집회 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인식될 수 있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인건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4조에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의 집회 소음 기준이 기존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됐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최고소음도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소 의아할수 있는 최고소음도란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한다.

최고소음도 기준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75~95DB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번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경찰서장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등의 명령이 발동하게 된다.

소음은 dB(데시벨)로 표시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나누는 일상적 대화는 60dB정도,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 안은 80~90dB 정도로 85dB를 넘게되면 불쾌감이 발생하고

130dB이상 되면 사람의 귀에 통증을 유발하고 심각한 고막까지 터질수 있다고 한다.

물론 경찰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하는 집회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준비 집회를 유도하는 한편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이나 음향 조절등을 요청하여 주민과 집회 주최측간 마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가기에 때문에 자신 또는 단체의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피력할 수 있지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집회시위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수 있는 만큼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모두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안보외사과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 고장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